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

100%

활용하기

글을 읽기에 앞서 지갑을 열어보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한 칸에 보이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지갑 포켓에 꽂혀 있을 것이다.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지폐와 각종 영수증들이 또한 한 몫 하면서 지갑 내 공간을 차지한다. 이러저러한 지갑 내용물 중에 혹시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는 지갑에 들어 있지 않나 확인해 보자. 이번 모바일 핫토크의 주제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이하 멤버십 카드)'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늘 호주머니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멤버십 카드다. 한 때는 그저 포인트 적립카드 정도로만 여겨졌던 카드였지만, 이제는 각종 혜택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쓸모 있는 카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심지어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픈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한 멤버십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 글을 통해 멤버십 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포인트가 0이 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사용해 보자.

글_임영모 객원기자

영 업무에 근무하는 장 대리는 회사 내에서 주로 '짠대리'로 불린다.

수중에 돈이 한 번 들어가면 밖으로 새어 나올 틈이 없는 철저한 금전 관리를 하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점심 식사 후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고 들어온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가져온 종이컵은 대개 장 대리의 몫이 된다.

개당 50원의 보증금을 주는 그 컵들을 일주일 단위로 모아 반납하려 갈 때 그녀의 표정은 너무 흐뭇해 보인다. 요즘은 땅에 떨어져 있어도 주울까말까한,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는 노동의 대가와 견주어 볼 때 특별히 쓸모가 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50원이지만 그녀는 '티끌 모아 태산'의 정신으로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짠순이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 있다

동료들은 장대리를 '짠대리'라 부르면서도 종종 그녀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 그녀에게 물어보면 각종 할인 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다양한 이벤트, 마일리지 혜택, 값싼 쇼핑 정보 등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식 장소 하나를 잡더라도 그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면 10~20%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같은 값에 무료 부록상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그녀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얻어먹는' 효과가 있다.

장대리가 짠순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를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영화는 반드시 개봉관에서 봐야 하는 스타일이고, 남자 친구와의 데이트는 근사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선호하고, 쇼핑도 곧잘 하고 놀이동산 같은 곳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편이다. 그러한 그녀의 소비 원칙을 정리해 말하자면 '요즘 세상에 누가 제 값을 다 내고 사느냐'는 것으로, 그녀에게 이러한 다양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특별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

바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다. 영화관을 가면 멤버십 카드로 기본 2,000원 할인을 받고, 추가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로 1,500원 정도의 할인을 더 받는다. 한 편 관람에 7,000원 정도 하는 영화를 불과 3,500원에 본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에도 멤버십 카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10~20%의 할인을 받는다. 아침 식사대용으로 근처 빵집에서 샌드위치 등을 먹게 될 때에도 꼭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고,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할 때에도 멤버십 카드는 그녀의 필수품이 되어 있다.

외근이 잦은 영업직에 근무하는 그녀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회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일명 '법인폰'이지만, 이동전화 사용에 따른 멤버십 카드는 실사용자에게 발급해준다. 월 평균 8만원 안팎의 통화요금이나 오다 보니, 멤버십에 있어서 VIP 등급에 해당돼 연말까지 1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0만 포인트라는 것은 대략 현금 10만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포인트 소멸일(매년 말일)을 지나친다는 것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선의의 서비스를 무시하는 소비 행태가 아니냐는 게 그녀의 항변이다. 멤버십 카드는 무조건 많이 이용해야만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기획팀도 보람이 있고, 멤버십 이용가맹점도 공존하고, 덕분에 저렴한 값으로 이러저러한 소비도 즐길 수 있으니 상부상조 모델이 된다는 것. 그녀를 좇아 멤버십 카드의 세계로 빠져보자.

멤버십 종류	전년도 이용 금액	월 평균 금액	멤버십 포인트
VIP	연간 90만원 이상	7만5,000원 이상	100,000 점
GOLD	연간 60만원 이상	5만원 이상	70,000 점
SILVER	연간 30만원 이상	2만5,000원 이상	50,000 점
일반	연간 30만원 이하	2만5,000원 이하	30,000 점

〈표 1〉 SKT/LGT의 발급 기준

* 단 SKT의 경우 7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은 1등급 상향 / 6개월 이내 연체 3회 이상 고객은 1등급 하향 조정

멤버십 종류	전년도 이용 금액	월 평균 금액	멤버십 포인트
VIP	연간 90만원 이상	7만5,000원 이상	100,000 점
	5년 이상 장기 고객 중 전년도 월 평균 6만원 이상		
Diamond	연간 72만원 이상	6만원 이상	80,000 점
	5년 이상 장기 고객 중 전년도 월 평균 4만원 이상		
GOLD	5년 이하 고객 중 연간 48만원 이상	4만원 이상	60,000 점
SILVER	연간 30만원 이상	2만5,000원 이상	50,000 점
일반	연간 30만원 이하	2만5,000원 이하	30,000 점

〈표 2〉 KTF의 발급 기준



SKT 사용자를 위한 멤버십 안내 사이트 www.sktmembership.com

멤버십 포인트는 시한부 캐시백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는 이동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걸까?

이동통신사에 최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반 등급의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주며,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우선 제공해 주므로 그만큼의 현금을 거저 준 거나 다름없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제하게 되면 카드의 사용이 동시에 정지되는 연계 서비스로, 이동통신사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에서 주어진 서비스 비용이라 설명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동통신사에서 발급하는 멤버십 카드의 종류는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전년도 휴대폰 사용액 기준 10% 내외의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발급된다(〈표 1〉, 〈표 2〉 참조). 식당이나 쇼핑몰, 기타 많은 상점 등에서 운영하는 포인트제도 혹은 마일리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의 사용 비용이 캐시백(Cash Back)이 되어서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멤버십 포인트가 다른 종류의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포인트의 사용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간 포인트 이용한도가 주어지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되는 시한부 포인트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포인트를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누적되지는 않는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다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는 별반 상관이 없겠지만, 정당하게 자신의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캐시백으로 받은 현금 대용 포인트라고 인식하는 사용자로서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줄곧 못 쓰고 새해를 맞이했다면 아래 글을 읽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한 번 활용해 보자.

멤버십 카드 신청

아직 멤버십 카드가 없다면 우선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멤버십 카드는 전국에 있는 이동통신사 지점이나 아래 나열한 멤버십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포인트-레인보우 포인트, ez-포인트- 등에서 연간 2,000점의 포인트를 소비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회사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법인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일지라도, 실제 사용자 확인만



SKT : www.sktmembership.com
 KTF : www.ktfmembers.com
 LGT : www.lgtelecom.com

가능하면 멤버십 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꼭 활용토록 한다. 모바일 개발업체의 경우,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폰 역시 전화요금만 내고 있다면 멤버십 발급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동통신사에 따라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거나 길게는 몇 주 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KTF 사용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KTF 멤버십 사이트에 로그인해 보면 모바일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고, 이를 신청하면 폰으로 멤버십 관련 바코드 이미지를 전송해 준다. 이를 단말기에 다운로드받은 후 필요시 단말기의 바코드만 제시하면 되므로, 굳이 별도로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잔여 포인트는?

이동통신 요금 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용자라면 잔여 포인트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세서를 지나쳤다면 하더라도 앞서 말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조회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필자처럼요금 명세서를 보면 전월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 현황과 잔여 포인트 현황이 기록돼 있다

작작 5만 포인트 주어졌는데 벌써 2만 포인트 가까이 소진하는 경우는 상당한 '포인트 과소비' 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쌓아놓는다고 이자가 붙거나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소모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잔여 포인트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들렀다가 해당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 가격을 치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멤버십 카드의 할인을 믿고 잔뜩 주문해서 먹은 후 할인이 되지 않는다면 낭패 중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대중 자신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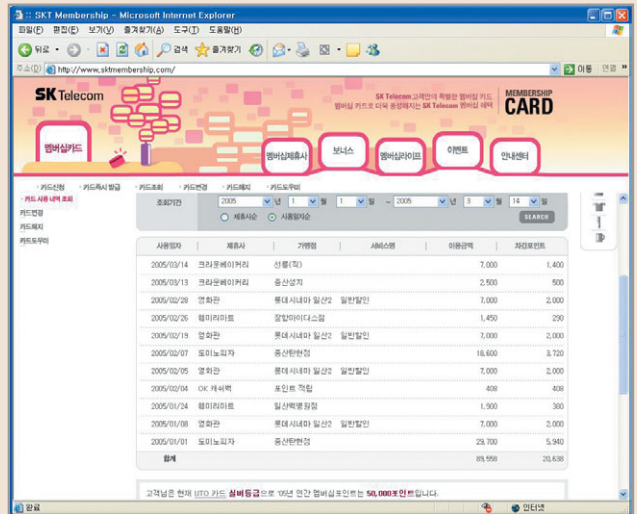
이런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의 별도 포인트로 충전도 가능하기도 하다. 멤버십 포인트 이외에도 SKT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포인트, OK 캐시백 포인트들이, KTF의 경우에는 보너스 마일리지, LGT의 경우에는 ez포인트와 마이LG포인트와 같은 것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포인트는 주로 월간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해 1% 정도와 e메일 명세서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적립해주는 것으로, 휴대폰 AS를 받거나 사이트 내 쇼핑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각종 부가서비스는 물론 무료통화, 기부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멤버십 포인트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 기능을 이용해 멤버십 포인트를 충전할 수도 있다.

멤버십 포인트, 어디에서 쓸까?

이제 카드를 발급받았고 잔여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파악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한다. 물론 이 정보 역시 가



요금 명세서를 보면 전월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 현황과 잔여 포인트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포인트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잔여 한도를 조회하는 것도 꼼꼼한 소비자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장 손쉬운 방법은 멤버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이겠지만, 이동통신 3사의 비교를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생활 부문 요즘 대다수의 영화관들이 이동통신사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보니, 영화를 제 값 내고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대부분 이동통신 3사 멤버십에 대해서 공동으로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나, 몇몇 극장에서는 이동통신사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극장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멤버십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가운데에서도 영화 할인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하므로, 많게는 4,000원 선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조조할인까지 받을 경우에는 거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한 편 빌려보는 수준으로 영화를 즐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 다소 불편한 게 있다면 극장에 직접 가서 티켓을 구매해야만 한다는 현장할인 제도라는 것이다. 극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구분	영화관(멤버십 가맹점)
SKT	2,000원 할인(차감) : 온라인 예매(cizle.nate.com) 시에도 적용 20여개 자동차 극장 50% 할인 서비스(차감)
KTF	2,000원 할인(차감) : **700 을 통한 온라인 예매 시에도 적용
LGT	2,000원 할인(차감) : 맥스무비 사이트를 통한 예매 시에도 적용 기타 자동차 극장 할인 서비스 제공(차감)

<표 3> 문화생활 부문

구분	SKT	KTF	LGT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트, TGIF, 마르쉐, 프레스코, 베네치아 20% 할인(차감) 제이드가든, 디중 15~20% 할인(미차감)	베니건스, VIPS, 스카이라크 20% 할인(차감) 카후나빌 20%(미차감)	TGIF 20%, 씨즐러 10%, 그랑빠야도 20%, 우노 20%(차감), 오션블루 10%, 제이드 가든 20%, 까르네스테이션 10%, 디중 15%, 카후나빌 20%(미차감),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천원당 200원 할인, 도미노피자 20% 할인(차감)	KFC 20%, 피자헛 10% 할인(차감)	맥도날드, 파파이스, 미스터피자 20% 할인(차감)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크라운베이커리 20% 할인(차감)	크라운베이커리, 두레주르 20% 할인(차감)	두레주르 20%, 성심당, 궁전제과 10% 할인(차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차감)	할리스 20%, 자바시티 10%(차감), 자바커피 10%(미차감)	스타벅스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차감)
기타	나뚜르 10% 할인(미차감)	왕돌잡, 나뚜르, 명동밀리오레 푸드코트, 베어마운틴, 이프유(쿠2국), 하드락카페, 베에드로 등 할인 혜택	까펠로, 델리, 성신제피자, 마이크로펍, 피자2001, 치퍼스, 나뚜르 등 할인 혜택

〈표 4〉 외식 활동 부분

구분	SKT	KTF	LGT
24시간 편의점	헤미리마트 20% 할인(차감)	바이더웨이 20% 할인(차감)	LG25, 미니스톱(호남지역에 한함) 15% 할인(차감)
패션/의류	아이겐 포스트 10%, 우들스 10%,	엘칸토 25% 할인(미차감) K-SWISS 10%(백화점은 별도, 차감) 무크 : 10% 할인(미차감) 해피랜드 10%, 압사바 10%, 파코라반 베이비 10%, 프리미에주르 10%(미차감)	디펠스 10%, 챔피언 10%, 칼카니 10%, 엘칸토 25% 할인(미차감)
주얼리/꽃배달	로이드 5%(미차감, TTL 서비스 한)	로이드 5%, 오 해피데이(꽃배달) : 15% 네오포토 : 인화 50%(미차감)	5425플라워 15%(미차감)
헤어/뷰티샵	박승철헤어 25%, 최가을 30% 제오헤어 30%, 리안헤어 30%, 오다헤어 30%, 가이헤어 30%, 존앤제인헤어룩 20%, 김가영 세마헤어 20%(미차감)	준오헤어 30%, 박준뷰티랩 20%, 이철헤어커거 20%, 마샬뷰티살롱 20%, 살롱드무사이 30% 등 (미차감)	이가자헤어비스 15%, SBS美뷰티아카데미 2천원, 유혜정살롱 20% 할인(미차감), 장피엘헤어커뮤니티 20%(차감)
기타	전국 80여개 찜질방 입장료 50% 할인 Street 가맹점 10% 할인(차감) 스피드 메이트 정비 1만원(차감)	그린카드(책대여) 50%, 드림카드(장난감대여) 50%(차감), 하이버디(베이비시터) 시간당 500원 할인(미차감) KT몰 : 고객전용할인몰 OK Book : 배송비 무료	락시웰니스 20%, 가맹스포츠헤어 10~20% 할인

〈표 5〉 편의점 및 쇼핑물 부분

나, 일반적인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를 할 때에는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느냐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움직이느냐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SKT의 경우 씨즐 사이트(cizle.nate.com)에서, KTF는 **700+통화를 통한 예매를 통해서, LGT는 맥스무비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를 할 때 멤버십 2,000원 할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약간의 귀차니즘은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극장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도 있으며, KTF 멤버십의 경우에는 국립극장, 대학로 라이브 극장 등 www.kftticket.com에 수록된 공연장에 대한 할인 예매 서비스와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월간 디자인/씨네 21 등의 잡지 정기 구독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타사 멤버십보다 폭넓은 '문화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항목들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영화의 할인 서비스는 포인트 차감 서비스로, 할인받은 만큼 포인트 사용 가능액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과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 종류를 나눌 수 있으므로, 도표에서는 가능한 한 꼼꼼히 표기해 왔다.

다르므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 4〉와 같은 비교표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신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매장이더라도 같이 가는 친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일 수 있으니, 오늘은 친구보고 포인트 한 톨 쏘라고 줄라보자(이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친구들끼리는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 멤버십을 쓸 필요도 있다).

이 중에서도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과 차감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다. 미차감으로 표시된 곳은 아무리 자주 이용해도 포인트가 감소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눈여겨 볼 것.

member CARD 편의점 및 쇼핑물 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멤버십 카드 때문에 편의점을 골라서 간다는 것은 우수한 주장일 수 있지만, 비슷한 거리에 있다면 좀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편의점을 선택하게 마련.

비록 잘 사용하지 않는 10원 짜리가 몇 개 생기긴 하겠지만, 1,000원 들고 가서 600원 짜리 캔커피를 하나 산 후, 거스름돈으로 500원 짜리 동전과 10원 두 개를 받아드는 느낌은 꽤 쓸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의류매장이나 패션잡화 매장에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헤어샵이나 뷰티샵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멤버십 카드만 보여줘도 포인트

member CARD 외식활동 부분
멤버십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먹거리 분야이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가맹점이

구분	SKT	KTF	LGT
놀이공원	에버랜드 50%, 캐리비안베이 50%(성수기 30%), 코엑스 아쿠아리움 30%(이상 차감) 부산 아쿠아리움 10%(해저탐험 50%), 아인스월드 2천원 할인(미차감)	에버랜드 50%, 캐리비안베이 50%(성수기 30%), 대우우방타워랜드 50%(차감)	광주패밀리랜드 50% 대우우방타워랜드 50% 대전꿈돌이랜드 50% 아인스월드 1,500원 할인(차감)
워터파크	설악 워터피아 40%(차감) 아산 스파비스 50%, 지리산 온천랜드 50%, 대구 스파밸리 50%(차감)	설악 워터피아 40%(차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수영장 : 입장료 50%(차감)
스포츠 관람		매직윙스(부산경기) 1천원 할인(차감)	FC서울 축구경기 : 일반석 50%(미차감) LG트윈스 야구경기 : 2천원할인(차감)
여행 관련	투어비스 콘도/온천 50%(차감), 투어비스 해외리조트 20%(미차감)	한화콘도 준회원가 적용(차감),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골든비치호텔, 제주 스위트호텔, 제주 KAL호텔, 서귀포 KAL호텔, 해비치 리조트, 설악파크, 제주씨월드 회원특별가 적용 AVIS 35%(미차감)	금호렌터카 : 35% 할인(미차감)
기타 여가활동		기타 온라인 게임,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찜질방, 보드게임방, 플스방 할인(차감)	다이스택(보드게임) : 20% 할인(미차감) 닥스클럽 가습비 10% 할인(미차감)

〈표 6〉 여행/여가 생활 부분

차감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값을 모두 내고 이용한다는 게 오히려 겹칠 듯어 보이기에까지 하다.



여행/여가 생활 부분

놀이공원이나 유원지로 놀러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하다못해 근처 보드 게임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멤버십 카드는 큰 힘이 된다. 서비스를 비교한 〈표 6〉을 보면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SKT의 서비스가 좀더 나은 편이고, 스포츠 관람 부분에서는 LGT가, 숙박 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KTF가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거주지나 활동 영역에 따라서 가맹점이 각각 다르므로 이러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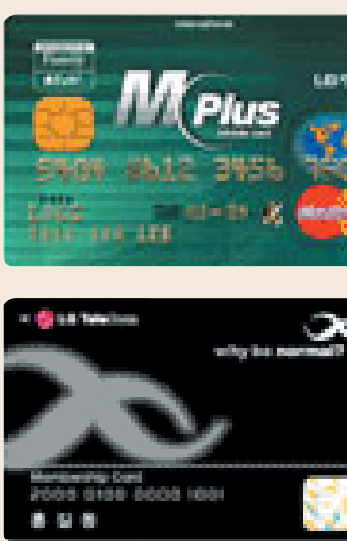
여기 기재한 조건 이외에 몇몇 조건들이 업소마다 별도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멤버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확한 할인율과 포인트 차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 서비스 부분

해외를 나갈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멤버십 카드로 라운지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다. 출국 심사 받은 후 면세점 쇼핑에 시간 없다는 사용자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제공 라운지 서비스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불과 500에서 1,000 포인트 정도만 소요해도 한결 여유 있는 출국 대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멤버십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세부 가맹점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멤버십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볼길 바란다. 이 가운데 VIP 서비스는 좀더 특별한 혜택이 주



구분	인천국제공항
SKT	리더스 클럽은 인천공항 라운지 500 포인트로 활용 공항 내 워커힐(식당, 카페 등) 10% 할인(미차감)
KTF	KTF멤버스공항라운지 무료 이용(포인트 500점 차감)
LGT	스카이 파라다이스 무료 이용 (1천점 차감) 노스웨스트월드클럽 무료 이용 (1천점 차감)

〈표 7〉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서비스

어지기도 하고, TTL, Ting, 나지트, 드라마 등 연령별, 성별에 따라 별도의 회원 서비스도 따로 존재하므로 자신에 맞는 혜택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한다.

멤버십 카드와 함께 알뜰한 생활 경영을

또 한 가지 생활에 도움되는 조언을 덧붙이자면 현금영수증제도에서의 활용법이다.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한 사용자도 많을 것 같다. 멤버십 카드만 있으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간단해진다. 매번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꺼내 건네며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는 것보다, 멤버십 카드를 현금과 함께 건네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 이렇게 처리한 현금영수증은 멤버십 카드 번호를 기준으로 등록되므로 연말 정산을 할 때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이 정보는 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옮기고자 한다면 이러한 멤버십 혜택 부분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도 및 이동통신사를 찾고자 한다면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010.ktoa.or.kr 사이트에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란다.

아무래도 필자의 멤버십 포인트는 올해 상반기를 못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남겨서 못 쓰는 것보다는 쓸 수 있을 때 충분히 쓰는 게 낫다는 생각에 오늘도 베이커리에 들러 샌드위치 하나를 할인받아 구매한다. 경기가 슬슬 풀리는 조짐을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멤버십 카드와 함께 알뜰살뜰 활동비와 생활비를 경영해 나가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